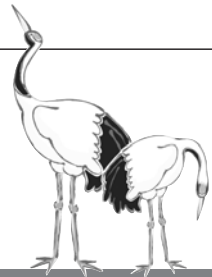


따뜻한 겨울에 놀러왔은 철새



엘니뇨 현상, 철새 서식지도 바꾸나

DMZ 재두루미·서산 고니 등 남하 않고 월동 순천만·영암호 개체수 예년비 20~30% 줄어

요즘 순천만과 영암호에서는 예년보다 20~30% 가량 적은 수의 철새만이 겨울을 나고 있다. 반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 강원도 철원평야 주변에서는 평년의 두배에 이르는 4000여마리의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가 군무를 하며 겨울을 나고 있다. 좋은 서식환경을 버리고 굳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철새가 따뜻한 지역으로 남하하는 것은 풍부한 먹이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겨울은 이상고온 때문에 굳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엘니뇨 현상에 따른 이상고온이 한반도의 철새 서식지도를 바꿔 놓았다. 한국물새네트워크와 한국조류보호협회가 최근 철원평야 철새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월동중인 재두루미가 4000여마리

로 예년(2000마리) 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다. 김수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 사무국장은 "10~11개 철원평야를 찾은 재두루미는 12월이나 이듬해 1월 기온이 떨어지면 남하하는데, 올해는 겨울답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월동 개체수가 예년보다 많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남하하는 쇠기러기도 올해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충남 서산간척지(천수만)도 마찬가지다. 서간간척지에는 요즘 큰기러기, 쇠기러기, 흑두루미,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등 10여종의 철새 10만마리가 겨울을 나고 있다. 예년 이

때때 6만마리에 비해 절반 이상 늘어난 것이다. 철새 생태공원인 서산버드랜드의 이윤 운영팀장은 "벗집 잔치와 먹이주기 행사로 간척지의 먹이가 풍부한 데다 철새 놀이터인 인근의 담수호(간월호·부남호)도 얼지 않아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과 경남지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월동하는 철새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기러기류는 6000여마리로 지난해 이맘때 8000여마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

해남군 영암호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

도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고온 때문에 철새들이 중간기착지인 서산간척지와 금강하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를 찾은 철새도 하루 평균 1만여마리로 지난해 이맘때 2만여마리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기온이 계속되는 데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봄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수문을 닫으면서 수위가 높아진 것이 철새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조류 전문가인 공주대 조삼래 교수(생명과학과)수는 "이상고온 현상이 한반도의 철새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없다"며 "하지만 먹이 등 좋은 서식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철새 특성상 폭한 날씨가 지역간 이동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대부업체 127곳 긴급 점검

금리 상한 규제 유효기간 만료... 서민 피해 예방 차원

전남도가 대부업체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로 법정 최고금리 상한 규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대부업체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해까지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34.9%로 제한했던 규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일시 소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현재 도내 대부업체는 127곳으로, 전국(8762곳)의 1.5%, 대출잔액은 528억원으로 전국(13조3400억원)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자수는 1만3389명으로, 전국(261만4000명)의 0.5%에 해당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도민 1인당 395만원 정도를 빌린 셈이다. /연합특기자 chadol@kwangju.co.kr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

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64) 전남대 경영대 교수가 임명됐다. 문순태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은 12일 박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관련 기사 5면>

이에 앞서 이사회는 전체 재직이사 18명 중 대리인을 포함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의견 없이 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허성관 전 원장 임명 논란 등을 고려해 인사위원회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도록 정관·규정을 개정할 바 있다.

박 교수는 "광주발전연구원·전남발전연구원) 통합과정에서 상처도 있었던 만큼 고급 인적자원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키워갈지 고민하겠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광주·전남의 상생을 이끄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전남대 경영대학원장, 한국산학협동연구원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원장은 임기 3년으로 최초 임용 시 차관급, 이후 매년 성과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취임식은 오는 15일 열린다. /연합특기자 chadol@

4D 작전 북 핵 탐지·탄도미사일 파괴 한·미 연합연습 3월 첫 실시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대응 체계인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을 이르면 3월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2일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 및 미사일 대응작전인 '4D 개념'을 토대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면서 연합연습 시행과 작전수행체계 정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이런 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 연합연습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애초 계획보다 4D 작전 연합연습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3월 실시될 키리졸브(KR) 연습 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제4차 한미안보회의(SCM)를 통해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한 지 4개월여 만에 일정을 조정해 첫 연합연습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한 데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군 당국이 추진 중인 4D 작전 연합연습은 TTX 수준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연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 작전선'의 앞글자를 따 붙인 용어로, 유사 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탄두, 탄도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하면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우리 상공으로 진입하기 전에 파괴한다는 작전개념이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1호’로 바꾸자”

시민단체 건의서 제출키로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 국보 1호를 송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키로 했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 문화지킴이'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송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대신 지정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화재청에 '송례문 국보 1호 해지 및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송례문은 1934년 국보 1호로 지정됐으나 일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2008년 불에 탄 후 부실복원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보 1호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6일 '문화재지정번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당시 공청회에서 국보번호제 개선에 최소 130억~최대 450억원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그렇다면 송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대신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정하는 게 현명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가한 학계·경제계 등 여성지도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혈세 투입' 대형 국책·방위사업 비리 차단

240조원 운용 공공시스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평창 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및 방위사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 척결 방식으로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우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5조1000억

원), 과학벨트 조성(5조7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대형 SOC 사업(12조7000억원) 등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3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의 가장/젊음의 가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인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치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2016년 부동산 전망 및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특강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시	2016. 1. 13(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교시 (1) 2016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폭집개 투자 전략 대응법 공개
(2) 부동산 지역별/물건별 맞춤 투자 전략

2교시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공개 및 정확한 수익성 분석
(2) 부동산 가격 상승 핵심지역 분석-임대수익과 시세 차이 동시 공략 비법

3교시 (1) 개발지 투자(소액포함)로 영원히 월세받는 비법 대 공개-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한) 영지부동산 연구소 대표
(한)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한)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한)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한)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